



와, 여름이다! 여름맛이 모바일콘텐츠 만나기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이라고 한다. 이미 날씨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여름 흉내를 낸 바 있다. 이제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 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여름은 사람들의 몸을 떠나게 만든다. 학창 시절 여름 방학의 버릇을 고스란히 담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한달 남짓 주어지던 달콤한 방학 기간이 그리워지게 한다. 그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호에서는 이렇게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떠날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차마 떠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바일콘텐츠를 알아보려 한다. 이 여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휴대폰이 또한 여름나기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글 / 임영모 CT City 기획실장

매해 여름은 산과 바다를 더욱 푸르게 하면서 우리를 자연의 세계로 초대한다. 갖가지 과일과 곡식은 넉넉한 햇살을 쬐며 풍성함을 더해가고, 우리는 바다를 만나고, 산을 넘고, 계곡을 찾으면서 진한 땀방울을 쏟으며 자연을 만끽하곤 한다.

이러한 자연 속 생활 중에 그다지 달갑지 않은 여름 친구가 있으니 바로 모기다. 요즘은 난방이 워낙 잘 돼서 겨울철에도 활동하는 모기들이 발견된다고는 하지만, 여름이야말로 모기의 제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기로서는 야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내음이 못내 그리웠을 것이며, 밖에서 굶주린 모기들은 틈만 나면 집안까지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꼬박 밤새우게 만들곤 한다.

올 여름도 모기 퇴치는 휴대폰으로

이런 모기와 함께 올해 또다시 선보인 콘텐츠가 바로 도츠모바일의 '모기퇴치' 콘텐츠다. 작년 여름에 세계 최초로 발표된 이 콘텐츠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낸 것

으로 알려져 특화 모바일 상품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한 바 있다. 필자가 종종 기고를 통해 도츠모바일의 '모기 퇴치' 프로그램을 거론한 바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소개된 적은 없던 것 같아 여름 관련 콘텐츠의 1순위로 뽑아보게 됐다.

이 콘텐츠는 올해 여름 '2004 모기퇴치'로 버전업돼서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산란기의 암모기이며, 이 시기에 암모기는 숫모기를 피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로, 휴대폰의 스피커를 통해 숫모기의 날개짓 소리 음파를 발생시켜 암모기의 접근을 방지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지나해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요인 중 하나로 TV 뉴스 등 각종 매스컴에서의 대서특필을 들 수 있는데, 실제 임상 실험 및 관측 촬영 등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구매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모바일 문외한 세대로 소외되는 느낌마저 갖고 있던 30~40대 중장년층에서의 구매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모바일콘텐츠 시장에 있어 획기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제품이다.

올해는 지난해 버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바닷가·산들판용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사용자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해줬다는 게 특징이랄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드를 통합한 전지역용 버전도 따로 있어서 저렴하게 여러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칫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모기퇴치 사운드가 잠을 청할 때 거슬릴 수 있음을 감안해 설정 후 일정 시간 이후부터 작동하게 하는 수면모드 설정 메뉴가 있고, 작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



▲ 2004 모기퇴치 화면. 도시용, 바닷가용, 산들판용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용자 위치에 따라 특화된 사운드를 이용해 모기의 접근을 막는다.

도록 설계돼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 방전이나 지속적인 모기 억제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모기에게 헌혈을 많이 했던 분들, 내 피가 달콤한 것인지는 몰라도 유독 모기가 나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모기퇴치 프로그램으로 여름나기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휴대폰 안에서 펼쳐지는 여름 스포츠 세상

날은 덥고, 회사 출퇴근하는 것은 천근만근 발걸음만 무겁고, 비라도 한 번 오려하면 습한 기운에 숨이 턱턱 막히는 도시의 여름나기에는 무언가 색다른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하다.

수영장이나 해변에 가고 싶어도 막상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업무를 떠올리며 아쉬워만 하는 것보다, 휴대폰 폴더를 열고 모바일 속 여름 스포츠 세상을 즐겨보는 것도 쓸만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LG텔레콤에서는 북남교역에서 제공한 북한 현지 개발 모바일게임 '프로비치발리볼'을 선보인 바 있다. 북남교역은 북한 물품 등을 교류하는 업체인데, 북한 휴대폰 게임회사인 삼천리무역총회사의 모바일게임을 들여와서 국내 처음으로 북한 모바일게임을 선보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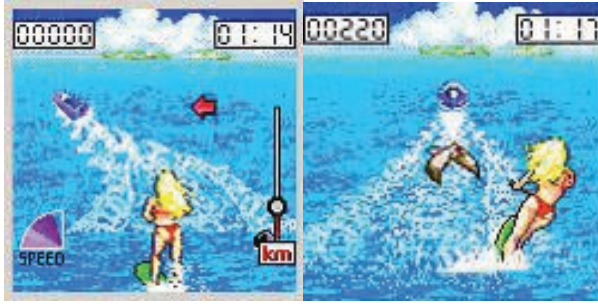
북한 개발 게임이라는 것 자체도 흥미거리이지만, 프로비치발리볼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들의 모습이러든지 게임 내용을 보면 과연 내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의심하게 될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고 있다.



▲ LG텔레콤에서 선보인 북한 모바일게임 '프로비치 발리볼'

우선 캐릭터들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온다. 김효리, 하옥주, 광미경, 안채홍 등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들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온다. 북한에도 이 이름의 원조격인 한국 연예인들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있나 보다.

키 버튼 작동은 자칫 단순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서버 종류에도 언더서브, 오버핸드 서브, 점프핸드 서브 등이 마련돼 있고, 리시브·토스·블로킹 등의 기



▲ 노리개소프트의 'Joy 수상스키'

일반 시장에 발표한 것은 좀 된 콘텐츠이긴 하지만, 여름철에 시원함을 즐기기에겐 괜찮은 상품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시원하게 물살을 헤치며 나가는 늘씬한 수상스키어의 모습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암초, 배, 박쥐, 갈매기, 상어 등의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목표점까지 무사히 도달해 멋진 수상스키어의 환희에 찬 모습을 만나 보자.

오색오색한 공포물로 여름에는 제 맛

여름만 되면 극장가에는 유명 혹은 공포영화들이 성황을 이룬다. 공포영화가 순간적으로 더위를 가시게 한다는 것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공포를 주제로 한 콘텐츠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매직하우스테크놀러지에서 계속 후속작으로 출시하고 있는 '추리특급' 시리즈는 이러한 분위기를 모바일로 느끼기에 괜찮은 콘텐츠다. 추리특급X2(KTF 및 SKT)에 이어 추리특급Zero를 KTF를 통해 선보이고 있으며, 주인공이 휴대폰을 습득해, 그 휴대폰으로 밤마다 도착하는 수수께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가는 추리게임이다.

이와 비슷한 게임으로 다날에서 만든 '침묵의 밤'도 있어서 공포추리게임의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여름을 즐기는 법

여름을 즐기는 방법은 가지가지다.

무조건 놀러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더 빼는 이열치열 전법을 구사하는 부류도 있고, 에어컨 바람만 쫓아다니는 냉방족들도 있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중요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여름이 됐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자칫 짜증나기 쉽고 지기 쉬운 여름이다.

하지만, 이 여름은 올해에 있어 다시는 오지 않을 여름이다. 뭔가 화끈하게 여름을 즐겨야 하지 않을까?

비록 휴대폰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서라도 말이다.



▲ 매직하우스테크놀러지의 '추리특급 Zero'

법을 구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해변가를 거닐지 못하는 마음들이 게임을 하면서 위로해 봐도 될 듯.

이 외에도 노리개소프트의 'Joy 수상스키' 등도 여름철이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 할 수 있겠다.